

## 월산의 생애 고찰

김광식\*

• 목 차 •

- I. 서언
- II. 생애, 역사의 고찰
  - 1. 수행기(1943~1954)
  - 2. 불교정화운동 참여, 중단 활동기(1954~1974)
  - 3. 불국사의 寺格 고양기(1974~1986)
  - 4. 불교사상(중도) 회향기(1986~1997)
- III. 결어

---

\* 동국대학교 특임교수.

© 『大覺思想』 제36집 (2021년 12월), pp.17-50.

## 한글요약

본 고찰은 현대기 조계종단사의 주역으로 불국사의 현대사를 이끌었던 고승인 월산대중사의 생애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글이다. 지금껏 월산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 및 연구는 매우 미약하였다. 다만, 최근(2019.12) 대각사상연구원에서 그의 생애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 성과물이 나와 있기에 그를 참고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생애를 알려주는 문헌, 증언 등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필자가 찾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그의 전 생애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런 입론에서 필자는 그의 생애를 몇 단계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의 그의 삶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그의 입산, 출가 이후의 수행기(1943~1954)를 조명하였다.

둘째, 그의 종단 활동(1954~1974)을 조명하였다. 이 기간에서는 식민지 불교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불교정화운동에 대한 주제와 총무원장 시절의 지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셋째, 불국사의 주지로 근무하면서 불국사의 역사와 문화를 증대시켰던 활동(1974~1986)을 다루었다.

넷째, 그의 불교사상인 증도사상에 의거하여 그의 제자, 경주 지역의 신도, 많은 대중들을 지도하였던 그의 마지막 삶(1986~1997)의 내용을 다루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다룬 본 고찰이 월산의 생애와 사상, 현대기의 불국사, 조계종단의 주역 연구 등에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 주제어

월산, 불국사, 조계종, 불교정화운동, 경주불교, 큰스님, 총무원장

## I. 서언

본 고찰에서 살필 고승은 月山大宗師(1913~1997 : 이하 월산으로 약칭)이다. 월산은 조계종단 재건의 역사인 불교정화운동의 주역이었던 金烏의 법을 받은 고승으로 널리 알려졌다. 월산은 조계종단의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북지역 불교를 상징하는 불국사의 주지 및 선원 조실을 역임하였다. 이는 월산이 한국 현대불교와 조계종단의 중요한 고승이었음을 말해주는 단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교학계에서의 그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미약하였다.

월산에 대한 생애사 전반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려면 그에 관련된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고, 그 연후에 수집된 자료를 철저히 분석을 하여 서술해야 한다. 그런데 월산의 자료집은 월산문도회가 1998년에 펴낸 법어집인 『월산선사 법어집』<sup>1)</sup>이 유일하다. 요컨대 월산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여 서술을 하려면 법어집의 내용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월산을 만났던 수많은 사부대중들이 전하는 이야기도 참고해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본 고찰을 집필하면서 찾을 수 있는 자료만을 갖고 월산의 생애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이 글의 한계가 노정된다. 다만 2019년에 대각사상연구원과 불국사·월산문도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학술세미나(주제 : 월산대종사의 생애와 삶)에 발표된 다양한 논문이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sup>2)</sup>

이런 전제에서 필자는 이 고찰에서 월산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즉 첫째 수행기(1943~1954), 둘째 불교정화운동 참여 및 종단 활동기(1954~1974), 셋째 불국사의 사격 고양기(1974~1986), 넷째 불교사상(중도) 회향기(1987~1997)로 구분하여 서술하겠다. 이는 그의 생애사의 활동 및 성격이 각 단계별로 구분되었다고 본 것에서 나온 것이다. 미진한 측면은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탐구로 보완해 가고자 한다. 이 글이 월산, 월산문도, 불국사 등의 역사에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1) 『月山禪師法語集』, 월산문도회, 1998.

2) 논고들은 『대각사상』 32집(2019)에 특집으로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요문중의 위상과 성격(김순석), 월산의 생애와 사상(김광식), 월산큰스님의 선사상(1)(한보광), 근현대 불국사의 사격(한상길), 성립월산과 불국사 선원(석길암) 등이다.

## II. 생애, 역사의 고찰

### 1. 수행기(1943~1954)

월산은 1913년 5월 1일(음력), 함경남도 신흥군 동상면 원풍리에서 출생하였다. 유년 시절에는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고, 신식 학문도 배웠다. 청소년기에는 문자 이전의 소식, 인간의 본래 모습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sup>3)</sup> 서당과 학교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나서, 입산하기 이전 청년기에는 망국의 한을 안고 외국(일본과 중국)을 왕래하였다. 20대 후반에는 만주에서 무관의 생활에 관여하였다.<sup>4)</sup> 그러나 1943년(31세)에 과거의 ‘풍운아’<sup>5)</sup> 생활과 결별하고 출가의 길을 갔다. 이에 대한 내용은 『법어집』의 연보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부친이 사망하신 후, 석왕사 노승인 양안광 스님 소개로 치악산 상원사 전금초 스님을 찾아 당시 수행 승단의 현황을 알게 됐고, 망월사로 소개 서찰을 받게 되었다.<sup>6)</sup>

즉 부친의 별세에 충격을 받아 인근 사찰인 석왕사로 갔다. 석왕사에서 노승(조실, 양안광)을 만났는데, 그 노승의 소개로 원주 치악산 상원사의 전금초를 찾아가서 만났다. 거기에서 망월사로 가라는 소개 서찰을 받았다. 그래서 1944년 해방 직전, 망월사를 찾아가던 월산은 거기에서 망월사 주지인 춘성을 만났고, 그의 안내로 금오를 은사로 하여 수계(사미계)를 하였다. 즉 1944년에 정식으로 출가(수계)를 하였던 것이다.

한편 월산의 석왕사 행은 우연이 아니었다. 월산의 상좌인 성타는 재가시절에도 佛緣이 있었고, 불심이 많았던 삼촌의 권유로 석왕사를 찾아갔다고 필자에게 증언하였다. 그래서 석왕사를 찾아 갔는데 그때에 道人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 이런 증언을 고려하면 월산의 출가는 우연이 아니고, 부친의 별세 후 출가하겠다는 강열한 자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3) 「行狀」·「年譜」, 『月山禪師法語集』, 월산문도회, 1998.

4) 성타(불국사 회주) 증언. 무관학교의 부대장을 역임하였다고 한다.

5) 선원빈, 「스님을 찾아서 - 佛國禪院 祖室 月山大宗師」, 『법륜』 98호(1977.4), p.43.

6) 위의 「연보」, p.369.

이런 행적은 월산이 살아생전에 회고한 증언에서 확인된다. 즉 2009년에 『선문화』와의 대담에서 행한 월산의 발언이다. 그는 다음과 같다.

내가 불교와의 인연을 맺게 된 데는 안변 석왕사를 자주 찾은 데서 비롯되었다.  
... (중략) ...

내가 출가하기 전에도 집에 있을 때 방 가운데에 좌복을 깔고 좌선을 했는데 그때  
참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명상에 들었습니다. 훗날 출가하여 금오스님으로부터 그  
공부가 바로 참선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 (중략) ...

석왕사와의 인연은 참으로 각별했지요. 내가 불문에 들어와 최초로 출가한 절이요,  
불법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된 곳이 바로 석왕사였기에 더욱 석왕사의 인연이 각별  
했지요. 내가 석왕사에서 약 1년간 있었는데 일본 군인들의 무장해제까지 내가 직접  
해주었어요.<sup>7)</sup>

월산의 석왕사 인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온다.<sup>8)</sup> 이렇듯이 월산은 석왕사 - 상원사 - 망월사를 거쳤는데, 망월사에서 금오를 은사로 삼고 계를 받고 정식으로 출가하였다. 그리고 나서 월산은 당대의 선승인 만공이 주석한 수덕사로 가서 수행하였다. 『연보』에서는 공양주 소임은 만공 회상에서 한 것으로,<sup>9)</sup> ‘이 뗏고’ 화두를 만공에게서 받았던 것으로 나온다.<sup>10)</sup> 이런 행적은 월산이 말년에 『불교춘추』와의 대담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월산은 만공에게서 이 화두를 받았지만, 금오에게도 이 화두를 받아 말년까지도 놓치지 않고 지녔다고 한다.

7) 최석환, 「인물담합 : 월산대전사, 덕숭산 선맥 이어온 큰스승 月山 선사」, 『선문화』 2009년 4월호, pp.51-53.

8) 그런데 최석환은 월산은 석왕사에서 1년간 행자로 있다가 8·15 해방이 되자, 금오를 따라서 망월사로 가서 수계를 하였다고 하였다. 최석환, 「인물연구 : 불국선원 조실 월산선사」, 『불교춘추』 3호(1996.5), p.17. 이런 내용은 문도회 차원에서 검증이 요청된다.

9) 최석환도 위의 글에서 만공 회상에서 공양주 소임을 한철 하였다고 월산이 증언한 것으로 기술했다. 그 당시 승려인 김현기가 월산과 함께 공양주, 채공을 1년간 하였다고 증언했다. 김현기는 오대산 한암스님의 좌탈입망 장면을 촬영한 육군소위의 정훈 장교이었다. 『현대불교』 1999.10.13, 「20세기 그 현장 그 인물 1 : 한암스님 좌탈입망 촬영 김현기 스님」.

10) 위의 최석환 글에도 만공에게서 이 뗏고 화두를 받았다고 나온다. 『주간불교』 1986.5.31, p.3의 인터뷰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월산스님」에도 만공의 화두 받은 내용이 전한다.

그 후, 월산은 수덕사를 떠나 만행 수행을 하였다. 그러면 수덕사를 떠나, 어디로 가서 수행을 하였는가? 그 대상처는 남은사(보길도), 봉암사(문경), 범어사 등이었다. 필자가 보건대 그는 수덕사를 나와서 보길도 남은사로 갔다고 본다.<sup>11)</sup> 1946년 만공이 입적하자, 수덕사에서 정진할 명분이 없어 남방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남은사에서 함께 정진한 대중은 비룡, 서암,<sup>12)</sup> 경산,<sup>13)</sup> 도광,<sup>14)</sup> 도천 등의 수좌들이었다. 월산은 탁발을 하면서 남은사에서 정진을 하였다.

그 이후 월산은 1948년에는 남은사에서 나와 수좌들이 결사 정진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봉암사로 갔을 것이다. 지금까지 봉암사 결사에 대한 역사에서 성철, 청담, 자운, 보문의 행적에만 유의하였다. 필자는 여기에서 봉암사 결사의 주역인 성철의 기록에 월산의 이름이 나온 2건의 자료 즉 성철의 구술 증언을 제시하겠다.

봉암사에 들어 간 것은 정해년(丁亥年), 내 나이 그때 36세 때입니다. 지금부터 36년 전입니다. 봉암사에 들어가게 된 근본 동기는, 죽은 청담스님하고 자운스님하고 또 죽은 우봉스님하고, 그리고 내 하고 넷인데, 우리가 어떻게 근본 방침을 세웠느냐 하면,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임시적인 이익관계를 떠나서 오직 부처님 법대로만 한번 살아보자.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해서 '부처님 법대로만 살아보자' 이것이 願이었습시다. 즉 근본 목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소는 어디로 정하나? 물색한 결과 봉암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우봉스님이 살림 맡고, 보문스님하고 자운스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넷이 들어갔습시다. 청담스님은 해인사에서 가야총림(伽倻叢林)한다고 처음 시작할 때에는 못 들어오고, 서로 약속은 했었지만 ... (중략) ... 그 뒤로 향곡(香谷), 월산(月山), 종수(宗秀) 젊은 사람으로는 도우(道雨), 보경(寶鏡), 법전(法傳), 성수(性壽), 해암(慧菴), 종회의장 하던 의현(義玄)이는 그때 나이 열서너댓살 되었을까? 이렇게 해서 그 멤버가 한 20명 되었습니다.<sup>15)</sup>

11) 위의 최석환 글, 「인물연구 : 불국선원 조실 월산선사」, p.17.

12) 이 청, 『서암 큰스님 평전 : 태어나기 전의 너는 무엇이었나』, 북마크, 2009, p.256, 「연보」.

13) 박원자, 『청정율사 경산스님의 삶과 가르침』, 동국대출판부, 2018, p.134.

14) 김광식, 「도광의 구도와 보살행」, 『한국 현대선의 지성사 탐구』, 도피안사, 2010, p.731.

15) 「1947년 봉암사 결사」, 『수다라』 10집, 1995, p.115.

위의 기록에 나오듯이 월산은 봉암사 결사의 현장에 있었다. 이 내용은 봉암사 대중이었던 혜암의 회고에도 월산이 나온다.<sup>16)</sup>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표방한 수행인 봉암사 결사에서의<sup>17)</sup> 정진은 그가 불교정화운동, 종단의 소임자를 맡을 때에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sup>18)</sup>

월산은 봉암사결사가 해체되자 6·25전쟁 기간에는 부산으로 피란을 갔다. 그는 범어사, 금정사, 선암사(부산) 등에서 정진을 하였다. 월산은 1950년 범어사 금어선원에서 정진을 하면서도,<sup>19)</sup> 금정사 선원장으로<sup>20)</sup> 있었다. 그리고 1951년에는 선암사 주지 소임을 보았다. 이에 대해 그 현장에 있었던 종원과 월산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래서 비구승들이 선암사를 얻었지요. 맨 처음에는 노장님 월산스님이 주지였고, 그 후에는 향곡스님, 석암스님이 후임 주지이었을 것입니다.<sup>21)</sup>

우리가 젊었을 적에는 다들 화두를 들고 공부를 했지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산 선암사에서 오래 지냈지요. 육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내원사에도 있었고<sup>22)</sup>

즉 선암사(부산)에 있다가 내원사(양산)로 가서 정진을 하면서 6·25전쟁의 어려움을 겪었다. 선암사에는 6·25전쟁 기간에 아주 유명한 선방(소림선원)이 있었다. 당시 그곳에서 출가한 인환도 월산이 거기에서 수행을 하였다고 증언하였

16) 「혜암스님을 찾아서」, 『고경』 2호(불기 2540년 여름호), p.19.

17) 김광식, 「봉암사 결사의 전개와 성격」,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pp.103-110.

18) 월산은 당시 봉암사 원주를 본 보경과 친근하게 지냈다고 한다. 그래서 보경이 머물던 사찰인 부산 감로사에 자주 왕래를 하였다고, 보경의 상좌인 혜충(감로사 주지, 전 포교원장)은 필자에게 증언했다.

19) 『근대선원 방함록』, 조계종 교육원, 2006, p.360의 범어사 금어선원 수좌명단에 淨桶 소임으로 월산이 나온다.

20) 『월산선사 범어집』의 화보에 1950년 동안거 해제 당시, 금정사 선원에서 수좌 대중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온다.

21)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p.267. 당시 대중으로 금오, 성철, 흥경, 무불, 강석주, 자운 등이 있었다. 주지 발령은 이종욱 총무원장이 하였는데, 영암스님의 부탁이 있었다고 한다.

22) 『월간 海印』 31호(1984.9), 「불국선원을 찾아서 : 염화실의 미소 - 월산」.

다.<sup>23)</sup> 월산의 후임으로 향곡이 선암사 주지로 있었는데 그 무렵 유명한 수좌(지월, 서옹, 홍경, 무불, 향곡, 설봉, 도광, 운문 등)들이 그곳에서 수행을 하였다. 월산은 그 후 1952년 무렵은 통영의 용회사 도솔암의 효봉 회상에서 수행을 하였다. 당시 효봉의 시자인 일관(박완일)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때 도솔암에 누가 계셨다면 탄허스님, 소구산스님, 최월산스님, 손경산스님, 성수스님, 박비룡스님, 윤경스님, 범룡스님, 김지건도 우진 이라는 이름의 수좌로 한철났었지.<sup>24)</sup>

이렇듯 남방에서 수행을 하였다. 그는 그 무렵 목포의 정혜원에서 은사인 금오를 만났고, 완도에서 다시 금오를 만나 금오에게 받은 ‘돌맹이’ 화두를 들고 정진하였다.<sup>25)</sup>

한편, 1953년 무렵에는 청도의 적천사 도솔암에서 홀로 수행을 하였다.<sup>26)</sup> 월산은 생전에 상좌들에게 “청도 토굴생활은 소림굴의 달마 대사가 면벽하였던 그때의 심정 이었다”고 회고하면서,<sup>27)</sup> 제일 인상이 깊은 수행처를 말할 때에는 적천사를 언급하였다. 그런데 그의 적천사 토굴 수행의 始末의 기간은 분명치 않다. 홀로 수행 시 그는 양식이 떨어지면 대구로 나와 탁발을 하여 해결하고, 다리 밑의 거지들에게 보시하였다고 한다.<sup>28)</sup> 이런 수행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치열한 정진이였다. 그런데 월산의 비문(고은 지음)에 의하면 적천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나온다.

경북 적천사에서 정진중 禪機가 열려 한 消息을 얻었으니, 凡夫가 곧 부처이며

23) 『처처에 나툰 보살행 : 석암스님의 수행과 가르침』, 석암문도회, 2011, p.74.

24)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 선우도량, 2002, p.356.

25) 박부영, 『금오선사 평전』, 불교신문사, 2016, p.117. 박부영은 그 시점을 1950년이라고 서술하면서, 월산은 금오를 모시고 남은사로 가서 함께 정진을 하였고, 화두 정진에 대한 지도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광은 1946년으로 보고 있다. 위의 보광 논고, p.94.

26) 월산의 맞상좌인 증원은 1953년 무렵, 적천사 도솔암으로 월산을 찾아 갔다고 필자에게 회고했다.(2019년 4월 15일, 대구 수성구 정토사에서)

27) 위의 최석환 글, 「인물탐험」, p.55.

28) 위의 최석환 글, p.55.

煩惱가 곧菩提이니 앞생각이 迷하면 범부였으나 뒷생각에 깨치면 곧 부처이며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할 때는 곧 번뇌였으나 뒷생각이 경계를 여의면 곧 보리라 이르셨다.<sup>29)</sup>

이처럼 월산의 오도는 적천사에서 있었다. 때문에 적천사는 월산 생애사에서 주목할 사찰이다.<sup>30)</sup> 그가 토굴, 선원에서 수행을 마치고 종단 현장으로 나온 것으로 1954년 봄 무렵이었다.

지금껏 살핀 바와 같이 월산은 1943년 입산, 출가한 이후 거의 10년 동안 선원, 토굴 등에서 치열한 정진을 하였다. 그의 정진은 주로 화두 참선을 통한 운수행각이었다. 이는 그의 은사인 금오와 선승인 만공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 2. 불교정화운동 참여, 종단 활동기(1954~1974)

월산은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하였다. 그가 지방의 토굴에서 수행을 하다가 정화운동에 참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불교정화운동의 핵심적인 주역인 그의 은사인 금오에서 비롯되었다.<sup>31)</sup> 지금부터 금오·월산의 행보를 찾아서 그 전후 사정을 제시한다.

금오는 1953년 5월, 선학원의 조실로 추대 받았다. 불교정화운동의 근거이었던 선학원의 조실이었던 금오가 정화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배경을 말해준다. 불

29) 이지관, 「경주 불국사 성림당 월산대선사비문」, 『한국고승비문총집』,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p.1339.

30) 월산의 오도의 시점, 장소에 대한 문도회 차원에서의 설명은 부재하였다. 2019년 9월 1일, 불국사 불교문화회관(경주)에서 열린 세미나(대주제 : 월산대종사의 삶과 사상)에서 철산은 다음과 같이 필자에게 발언하였다. 즉, 월산은 월서스님이 남지장사 주지를 하던 무렵에 남지장사의 산내 토굴에서 수행을 하다가 깨달았다는 것이다. 필자가 『月榭禪師 圓鏡錄』(2005)의 연보를 찾아보니 월서스님은 1962년 7월 15일에 남지장사 주지에 취임하였고, 1968년 3월에는 범주사 재무국장을 맡았다. 이런 이해를 하면 1962~1967년경에 월산은 2차로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월산은 1961년에 동화사 주지를 하였는바, 동화사 주지를 하면서 말사인 남지장사의 토굴에서 수행 정진을 하는 과정에서 깨달았지 않았는가 한다. 이런 깨달음에 대한 점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

31) 김광식, 「정금오의 불교정화운동」, 『불교학보』 57, 2011.; \_\_\_\_\_, 「불교정화운동에서 금오선사의 역할」, 『金烏스님과 한국불교』,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교정화운동이 이승만대통령의 유시(1954.5)로 본격화되기 이전 종단 내부에서 자체적인 정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1952년 수좌 이대익이 당시 교정(중정)인 송만암에게 수좌의 전용 수행도량의 제공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만암은 통도사와 불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종단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종단은 만암의 지시를 수용하여 18개 사찰(동화사, 직지사, 신륵사, 보문사 등)을 비구승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8개 사찰의 주지는 사찰의 양도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비구승들은 분노하였다.

바로 이럴 즈음 금오는 조계사에서 열린 주지회의에 범문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금오는 그 범회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금오는 선학원 조실이었는데 주지(대처승)들에게 범문을 하면서 중정인 만암이 지시하고, 종단이 결정한 사찰 양도를 조속히 실천하라고 계승으로 촉구하였다.<sup>32)</sup> 선학원으로 돌아온 금오는 태고사에서 있었던 일을 대중(대월, 월산, 범행, 범홍, 정영, 지영 등)에게 전했다. 이러 전후 사정을 들은 승려들은 협의 끝에 종단의 주지회의에 선학원 수좌인 대월, 범홍, 정영 등의 3명을 대표로 선출하였다. 이들은 주지회의에 가서 비구승 수행 전용을 위한 사찰 할애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sup>33)</sup> 그러자 대처승은 사찰 할애의 주장을 하는 비구승을 회의장에서 내쫓았다.

이때부터 비구승들은 선학원에서 회의를 갖고 불교정화에 뜻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전국 수좌들은 1953년 가을, 선학원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러나 정화 대책을 정하지 못하고 동안거 결제로 인해 연고 수행처로 돌아갔다. 그래서 정화의 열기는 잠시 주춤하였다.<sup>34)</sup>

위와 같이 1953년에 선학원에서 불교정화가 태동이 시작될 때에<sup>35)</sup> 월산은 금오의 지근거리에 있었다. 금오는 선학원과 팔달사(수원)에도 가서 주석하였다. 그때 월산도 팔달사에 함께 있었거니와 그 정황은 금오의 상좌인 이두가 회고한

32) 『월서선사 원경록』, 월서선사법어집 간행위원회, 2005, pp.416-418, 「큰스님의 ‘한 말씀’」.

33) 『금오집』, 1977, p.181.

34) 강석주·박경훈, 『불교근세백년』, 1980, 중앙신서, pp.239-240.

35) 범행은 1952년 경, 선학원에서 월산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금오선수행연구원,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 2권, 2008, pp.156-159.

내용에 나온다.

나(필자 주, 이두)는 큰스님을 피시고 팔달사에 도착했다. 그때 주지인 범행스님이 34세의 젊은 때였다. 범행스님은 아주 예쁜 젊은이의 인상으로 기억된다. 그때 나는 김송월의 약을 먹고 병을 얻어 냉증 소화불량 여러 가지의 병객으로 한 여름을 살았다. 똑똑하게 큰스님 시봉을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때 월산스님도 처음 뵈었다. 그해 여름에 종단의 정화시비가 싹 트는 것이 신문에 나타났다.

그때 교단에 교정인 송만암스님께서 통도사 모임에서 대처승으로 인해서 종단이 말할 수 없이 부패 타락했으니 종단은 정화가 필요하고 만일 정화하지 않는다면 불교는 끝내 망하고 만다는 담화와 교시를 하셨다는 기록을 어떤 유인물을 통해서 읽었고 그 유인물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난 것을 읽었다. 절에 온지도 얼마 안 되지만 그때 나는 종단에 대해서 우물 안에 개구리 격이었다. 결제중인데 비오는 날 범어사 청풍당에 계시는 지효스님이 큰스님과 월산스님을 뵈고자 찾아 오셨다.

그때 스님들 이야기 말씀을 들으니 곧 종단에 정화싸움이 일어난다는 짐작이 있었다. 종단에 대처승은 중이 아닌데 이들이 종단의 실세가 되어 가지고 지금 종단을 다 맡아 먹고 정작 출가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종단과 무관하게 소외되어 있어서 한국불교는 지금 숨 넘어 가고 있으니 우리들이 나서서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제 불교를 구할 길이 없어질 것이다. 불교를 망치는 대처승을 몰아내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밤이 새도록 아주 진지했기에 미구에 종단싸움이 곧 시작될 것을 믿어졌었다. 선학원에 모여 선학원 운영에 관계를 달리 해야 하고 종단 정화에 관한 모든 일을 상의하기 위해 어떤 스님과 어떤 스님을 벌써 내통해서 합의를 이미 끝냈다는 것이다.<sup>36)</sup>

위의 내용은 자생적인 불교정화가<sup>37)</sup> 있었던 1953년 5월부터 이승만 유시가 있었던 1954년 5월 20일 이후까지 금오 주변의 정황을 전한다. 범어사 수좌인 김지효가 금오와 월산을 찾아왔다. 그래서 그들은 불교정화의 당위성, 추진 원칙, 방법 등에 대해 대화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월산은 금오의 지근거리에서 불교정화의 이념, 실행에 대해 고민하였을 것이다.

1954년 6월 선학원에 각처의 비구승들이 모여 들면서 불교정화에 대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강구되었다. 그 결과 금오가 ‘불교 정화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sup>38)</sup>

36) 장이두 회고록, 「<sup>18</sup> 금련사 토굴」. 이 회고록은 『해동불교』 1990.8.6~1992.7.13까지 「나의 수행기, 물처럼 구름처럼」의 제목으로 69회 연재되었다.

37) 김광식, 「만암의 불교정화관」,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 중도, 2018.

추대되었다.<sup>39)</sup> 금오가 정화 추진체의 위원장에 추대된 날은 1954년 6월 21일이었다. 여기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금오가 왜? 불교정화를 본격화 하는 최초 조직체의 책임자로 추대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금오가 수행자들의 수행도량의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노력하였던 진정성을 당시 수좌들이 신뢰하였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금오의 행동하는 실천성이 부가되었다.<sup>40)</sup> 즉 수좌를 이끌던 지도자,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이었다.

금오가 책임자로 있었던 불교교단 정화 대책위원회는 선학원에서 불교정화운동을 본격 추진하였다. 1954년 6월 20일, 기존 교단(대처측)의 회의를 지켜보면서 정화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했다. 당시 교단 집행부는 기존 종현의 구도에서 개선만을 의도하였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敎化僧으로 표방하고, 수좌들에게는 48개 사찰을 제공하겠다는 미온적 대책을 표방했다. 그러자 선학원 수좌들은 분노하면서 본격적인 정화 실천으로 나갔다. 마침내 정화운동의 추진을 결정하는 대회인 전국비구승대표자 대회가 8월 24~25일, 선학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불교정화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sup>41)</sup> 대회에서는 65명의 수좌가 참여하여 교단정화, 도제양성, 총림창설을 결의하였다. 이는 교단 정화의 기본 방향의 수립이었다. 대회에서 금오는 종현제정 위원 및 정화 추진 대책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바로 이 대회에 월산도 참가하였다.<sup>42)</sup> 지금까지 이런 점은 월산문도회에서도 주목하지 않았다.

월산은 대회 참가 승려의 자격을 심사하는 전형위원의 5인(문일조, 채동일, 최월산, 정극오, 윤월하), 종현의 제현위원을 선출하는 전형위원 7인(윤월하, 소구산, 이순호, 대흥, 이대의, 김향곡, 최월산), 추진위원의 전형위원(채동일, 대흥, 문일조, 윤월하, 최월산, 박범룡, 이범웅), 대책위원의 선출위원(이순호, 이동현, 신소소, 이범웅, 최월산, 채동일, 이범홍)으로 활동하였다. 여기에서 월산이 대회의 실무진으로 활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회의 회의록에 월산의 소속이 영월 범홍사로 나오거니와 이는 그 무렵에는 범홍사에 머물면서 수행을 하였음을 추론

38) 『한국근현대 불교자료전집』 권68, p.421, 「비구승단 발족약사」.

39) 위의 장이두 회고록과 같음.

40) 『금오스님의 불교정화운동 2』, p.88, 초우 증언.

41) 김광식, 「전국비구승대표자 대회의 시말」,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42) 위의 책, p.446.

게 한다. 불교정화운동은 1954년 9월 28~30일, 선학원에서 개최된 전국비구승니대회로 이어졌다. 이 대회에서는 비구측이 준비한 신증헌이 통과되었고, 종단 집행부가 새롭게 선출되었다. 금오와 월산은 중회의원으로 피선되었다.<sup>43)</sup> 이때, 금오와 월산의 소속은 팔달사(수원)로 나온다.

불교정화운동은 1955년 8월 12일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를 기점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비구측은 교단 재정립을 기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비구승이 종단을 주도하고, 대처승은 종단 외곽으로 나갔는데 이런 변화를 당시 공권력 및 국민들이 동의하였다. 이때에도 금오와 월산은 중회의원으로 재추대 되었다.<sup>44)</sup> 금오는 종단 감찰원장과 봉은사 주지로 발령이 났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월산은 금오를 따라 봉은사에 머물렀다.

지금껏 살폈듯이 월산은 불교정화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운동 중심부에서 활동하였다. 이는 그의 은사인 금오가 정화운동을 추진한 연고에서 나온 것이었겠지만, 그 자신도 토굴 수행을 하면서 느꼈던 정화에 대한 소신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래서 그는 비구승대표자대회, 전국비구승니대회, 전국승려대회에 전부 참석하였다. 대회에서는 주어진 역할을 하고, 종단 비구승 대표로 참여하고, 중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대해 이두는 효봉, 동산, 금오, 청담을 정화운동의 원력보살이라고 부르면서 중년 세대의 보살로 월하, 경산, 지효, 구산, 월산을 거론하였다.<sup>45)</sup> 요컨대 월산은 1950년대 중반부터 종단을 대표하는 수좌이었다.

하여튼 월산은 조계종단의 역사에 중요한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그는 조계종단을 재정립케 한 주역으로서 정화운동이 일단락이 된 이후 여러 사찰에서 주지 소임을 보았다. 그가 맡았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57년 : 법주사 주지

1958년 : 조계종단 재무부장<sup>46)</sup>

충북 종무원장<sup>47)</sup>

43) 민도광, 『한국불교 승단정화사』, 1996, p.72.

44) 위의 책, p.547.

45) 위의 「장이두 회고록 24, 봉은사 생활」.

46) 위의 「장이두 회고록 32, 조계사 생활」. 정화기념관의 재정 모금으로 곤욕을 치루었다고 한다.

47) 설석우(동화사) 조계종 중정의 「葬儀彙報」에 충북종무원장으로 조사를 한 내용이

1959년 : 신흥사(설악산) 주지<sup>48)</sup>

1961년 : 동화사 주지<sup>49)</sup>

감찰원장<sup>50)</sup>

1962년 : 재건 비상중회 의원<sup>51)</sup>

1968년 : 법주사 주지<sup>52)</sup>

법주사 불교전문강원 원장<sup>53)</sup>

1969년 : 총무원장

법주사 선원 조실<sup>54)</sup>

1970년 : 한국종교협의회 회장<sup>55)</sup>

이처럼 그는 그가 정열을 다해 조계종단의 안정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

---

나온다.

48) 『대한불교』 1호(1960.1.1) p.2, 「광고」. 그런데 월산이 주지 취임을 한 일자는 알 수 없다. 월산에게 신흥사 주지를 인계한 인물은 동성(강원도 총무원 재무부장, 건봉사 주지, 내장사 조실 등 역임)이다. 安東星, 『普己出發錄』, 배달정사, 2000, p.208. 월정사 주지를 역임한 장희찬은 1959년 9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신흥사 주지로 근무하였다. 『오대산의 버팀목 - 만화 회찬선사의 수행과 가르침』, 오대산 월정사, p.801.; 해인사에서 단식을 하던 고은(당시 법명, 일초)은 1959년 11월 20일의 일지에서 “설악산의 월산스님한테서 격려전보가 왔다. <축단식 최월산> 산중 소식 무상스님도 하구나.”라 했다. 고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행복, 1994, p.90.

49)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pp.495-460. 월산이 동화사의 주지 시절 헌신적인 도량관리, 신도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 회고가 당시 대중이었던 현욱의 증언이 있다.

50) 『대한불교』 1962.1, p.1, 「근하신년」.

51) 김광식, 「불교재건위원회의 개요와 성격」,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p.517. 5차 비상중회의(1962.2.28) 회의록에 월산이 참여한 것이 나온다.

52) 『대한불교』 1969.5.25, p.1, 「광고」. 성정스님(청도, 약사사)은 1968년 월산스님이 법주사 주지가 되어 법주사 강원을 개원시키면서 정호경 강백을 초청하였다고 회고하였다. 『황악일지록』, 관음문도회, 2018, p.306.

53) 『대한불교』 1968.5.12, p.2, 「광고 : 법주사 강원 개강 공고」; 『대한불교』 1978.3.19, p.2, 「교육현장을 가다 : 법주사 강원」.

54) 『대한불교』 1969.12.7, p.2, 「선원과 강원 소개」.

55) 『대한불교』 1970.3.1, p.3, 「한국종교협의회 창립, 회장 월산스님」.

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의 행보, 의식, 지향 등을 다 거론할 수 없다.

이 기간에 주목할 내용은 그의 수행 및 전법이다. 월산은 1961년에 동화사 주지를 한 이후(1965~1967?) 말사인 남지장사의 토굴에서 정진하면서 깨달았다는 증언이 있다.<sup>56)</sup> 그러나 그 시점은 단정할 수 없지만, 이를 인정한다면 월산의 두 번째 오도이다. 월산은 1962년 무렵에는 소요산 자재암에서 정진을<sup>57)</sup> 하였고, 그 직후인 1963년에는 각화사 동암에서 정진을 하였다.<sup>58)</sup> 그러나 그 이후에는 사제인 월서가 주지로 있는 남지장사로 가서 정진을 하였다.<sup>59)</sup> 남지장사에서의 2차 오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한편 1968년 9월 말, 월산은 금오에게 법을 받았다. 그 당시 금오는 입적(1968.10.8)하기 10일 전이었는데 상좌들을 법주사로 불러 모았다. 그 자리에서 상좌 및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월산은 당당하게 법을 받고, 금오로부터 전법을 부촉 받았다.<sup>60)</sup> 요컨대 깨달음을 거친 직후에 금오의 법을 전수받았던 것이다.

지금부터는 1969년 9월에 총무원장에 취임하여 1970년 7월까지 총무원장 소임을 본 기간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불과 10개월에 불과한 시기이었지만, 그 기간에 월산은 어떤 판단과 현실인식으로 종단 운용을 하였는가에

56) 2019년 9월 1일, 경주 불국사 불교문화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대주제 : 월산대중사의 삶과 사상)에서 철산(대승사)은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즉, 월산은 월서가 남지장사 주지를 하던 시절에 남지장사의 산내 토굴에서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겪었다는 것이다. 『月棲禪師 圓鏡錄』(2005)의 연보에 월서는 1962년 7월 15일에 남지장사 주지에 취임하였다가, 1968년 3월에는 법주사 제무국장을 맡았다고 나온다. 그렇다면 1964~1967년 무렵 월산은 남지장사에서 두 번째로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57) 월산은 1962년 무렵에는 소요산 자재암에서 수행을 하였다. 자재암의 토굴인 백운암에서 정진을 하였다고 한다. 당시 자재암 주지는 할복 6비구이었던 권진정이었는데, 당시 자재암의 대중이었던 자월(이광준 박사, 동국대 65학번)이 필자에게 한 증언이다.

58) 월산은 1963년 경 각화사 동암에서 월탄, 월국과 함께 정진을 하였다고 현해(월정사 회주)는 주장한다. 김광식, 『오대산 버팀목 - 만화회찬선사의 수행과 가르침』, 월정사, 2011, p.281.

59) 남지장사의 극락전이라는 주장(철산)도 있고, 청련암이라는 주장(정수)도 있다.

60) 박부영, 『금오마귀 계수나무 위를 날고』, 불교신문사, 2016, pp.181-83; 『금오집』, 1974, pp.188-189.

주목한다. 그래서 이 기간의 월산의 고뇌, 지성, 대안을 들추고자 한다.

이런 전제에서 우선 월산이 총무원장에 취임하기 직전인 1969년 8월, 『대한불교』에 2회(1969.8.10 ; 1969.8.17)로 나누어 기고한 글 「比丘는 다시 再검토 할 때가 왔다 : 宗團은 四部大衆의 것」이 주목된다. 글의 내용은 당시 종단사의 내면을 보여준다. 또한 그에 대한 월산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월산은 이 글에서 조계종단 내부의 무질서, 반승가적 활동, 무이념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월산은 법주사 주지임을 분명히 밝히고, 종단의 좌표를 개진하였다. 조계종단 역사에 이렇듯이 공개적으로 종단을 비판한 고승은 희소하다. 이는 월산이 금오의 정화정신을 계승하고, 정화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애증적인 차원의 결단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나온 월산의 인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단은 사부대중의 것임을 천명했다. 둘째, 권력과 명예에 매몰된 승려와 종단의 고혈을 빨아먹는 신도의 사이비성을 강력 비판하였다. 셋째, 정치승의 행태와 사무승의 관료의식을 비판하였다. 넷째, 재산관리인으로 전락된 비구승의 현실을 비판하였다. 다섯째, 비구승들은 기본자세를 정비하고, 수행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여섯째, 종도의 대의기구인 종회는 해산하고 이해 및 공리를 초월한 종단의 이념을 재정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월산은 이 주장을 공개적으로 기고한 직후인 1969년 9월 7일에 총무원장에 취임하였다.<sup>61)</sup> 월산이 이렇게 의도치 않게, 총무원장이 된 것은 청담의 종단 개혁 주장 및 종단 탈퇴 선언을 하였던 종단 사정에서 기인한다.<sup>62)</sup> 당시 월산은 청담의 종단 탈퇴 선언(1969.8.12) 직후, 교단 혁신(종회 해산, 사부대중 중심 종회 조직)을 주장하였다.<sup>63)</sup>

그렇다면 총무원장에 취임한 월산은 어떤 정책을 구현하려고 하였는가? 그는 취임 직전에 종단의 모순, 정체성이 혼미한 승려들의 행태를 강력 비판한 당사자이었기에 그의 행보, 노선은 흥미롭다. 총무원장에 취임한 월산은 솔직하게 그의 포부를 개진하였다.<sup>64)</sup> 그 포부는 첫째, 사부대중 중심의 화합승단을 만드는

61) 『대한불교』 1969.9.28, 「총무원 신임간부 진산식」.

62) 김광식, 「이청담과 조계종 유신재건안 연구」,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63) 『조선일보』 1969.8.24, 「재연된 불교 분규」.

것이였다.<sup>65)</sup> 이를 위해 승려와 신도가 합동으로 일을 추진하는 기구도 설립하겠다고 하였다. 둘째, 종단원력으로 불교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피력하였다. 셋째, 각 분야별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포부이였다.

이런 전제하에서 1969년 9월 등장한 월산 집행부는 1970년대를 맞이하는 종단 행정을 수도하는 종단, 일하는 종단으로 표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승려자질 향상, 중앙교육원 설립, 사찰재산의 효율적 관리, 불교회관 건립 추진, 사회봉사 활동 강화, 성보 자체보존 관리 능력 강화 등을 설정하였다.<sup>66)</sup> 이런 지향은 그가 『대한불교』 1970년 1월 1일에 기고된 신년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sup>67)</sup> 즉 그 이전부터 추진된 종단 3대사업(도제양성, 포교, 역경)의 지속이었지만, 새로운 시대인 70년대 불교를 준비하려는 철저한 기획이였다.<sup>68)</sup>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월산집행부는 이와 같은 기획을 거의 추진하지 못했다. 출범 10개월 만에 도중하차를 하였기 때문이다. 월산의 총무원장 재임 시절에는 곤혹스러운 총책, 사건 등이 연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봉은사 땅(10만평) 매각 사건,<sup>69)</sup> 해인사 수좌들의 구들장 사건,<sup>70)</sup> 청담의 탈종 및 정화정신을 종단에 직접 구현해보겠다는 의지 구현,<sup>71)</sup> 선암사(순천) 분쟁,<sup>72)</sup> 태고종과의 소송<sup>73)</sup>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형 사건이 터지자 월산은 고뇌하

64) 『대한불교』 1969.9.21, 「총무원장 취임 시책」.

65) 『법륜』 1970년 4월호, p.11, 「총무원장 치사 - 대중과 더불어 사는 불교」. 월산이 전국신도회 11차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행한 치사이다.

66) 『대한불교』 1970.1.11, p.1, 「1970년대 종단행정 계획 - 5일 총무원 시무식서 발표」.

67) 그 내용은 화합 강조, 불자의 자질 향상, 3대사업의 실천, 불교회관 건립 등이였다.

68) 월산, 『법륜』 1970년 1월호, 「중흥위해 끊임없는 정진을」.; 『법보신문』 2018.6.11, 「5대 총무원장 월산스님」.

69) 『대한불교』 1970.3.29, 「봉은사 문제,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 「광고 ; 해명서」.; 『대한불교』 1970.7.5, 「10만평 처분 허가 ; 봉은사 문제 일단락」.

70) 『대한불교』 1970.1.11, 「해인사 소란사건 ; 전말」.; 보월, 「雜想 ; 海印波紋」, 『대한불교』 1970.2.22(상) · 3.1(하).

71) 김광식, 「청담의 ‘나의 고백’과 불교근대화」, 『마음사상』 8, 2010.

72) 『대한불교』 1970.2.8, 「선암사 분쟁, 그 전말을 알아보면」.

73) 『법륜』 19호(1969.12), 「총무원장 최월산 담화문 - 종단 소송의 승소에 즈음하여」. 월산은 이 담화문에서 불교정화운동과 통합종단의 정당성을 입증해 준 대법원 판결(1969.10.23)에 대한 소회를 피력하였다.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불법 본연의 질서, 청정화합의 강화(和同), 종단과업의 완수로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였다. 월산은 총무원장을 맡아서 그의 소신에 의거하여 종단을 이끌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그는 자리를 훌연히 떠나 방하착의 자세로<sup>74)</sup> 종단 중심부에서 내려왔다.<sup>75)</sup> 월산은 1970년 7월, 총무원장에서 퇴임하였다. 그의 후임은 중정을 역임한 청담이었다. 청담이 정화운동을 직접 추진하려는 구도가 반영되었다. 그는 상원사 조실로 수행을<sup>76)</sup> 하다가, 그의 거처인 법주사로 돌아와 정진을 하는 수행자가 되었다.

### 3. 불국사의 寺格 고양기(1974 ~ 1986)

월산은 10여 년간의 다양한 종단 소임을 거친 이후인 1974년 6월에는 불국사 주지에 취임하였다. 그가 불국사 주지에 취임한 시점은 불국사(주지, 범행) 복원 불사가 일단락 된 직후이었다. 그런데 불국사는 경상도 지역 불교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사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불교에서는 본사로 지정되지 못하였다. 즉 기림사의 수말사의 위상이었다. 그러나 불교정화운동 당시인 1959년에 首寺刹로 지정되었다가,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을 계기로 교구 본사제가 부활하면서 불국사는 11교구 本寺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77)</sup> 그리고 1969년, 정부의 도움을 받아 복원불사를 추진하여 마침내 1973년 7월 3일, 복원 준공식을 거행하였다.<sup>78)</sup>

그런데 복원불사를 마친 직후, 불국사 내부에서 분규가 일어났다. 그는 복원불사 과정에 바르지 못한 집행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주지(범행)의 승용차 구입, 관람료로 농장 구입, 주지직의 매관매직, 비로자나불 이운, 불전금(기도금) 이운 등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79)</sup> 그러자 종단에서는 기존 주지인 범행을 해촉하고, 신임 주지로 황진경을 발령하였다. 그러나 분규는 지속되었다. 범행은 1968년 11월, 이른바 불국사의 주도권 갈등에서 나온 ‘사리병 사건’을 해소하는

74) 그는 “내 소임이 아닌 것 같다”고 발언을 했다.

75) 『대한불교』 1970.7.19, 「임시 중앙총회, 월산 총무원장 불참 사퇴의사 표시」.

76) 김광식, 『처처에 나툰 보살행 - 석암스님의 수행과 가르침』, 석암문도회, 2011, p.407. 당시 성립(통도사)이 입승 소임을 보았다.

77) 한상길, 위의 고찰, pp.156-162.

78) 『대한불교』 1973.8.19, 「복원 불국사」.; 『대한불교』 1973.9.23, 「불국사 복원 회향 법회 成了」.

79) 『대한불교』 1974.6.23, 「광고 ; 해명서」.

구도에서 주지에 부임하여,<sup>80)</sup> 불국사 복원이라는 대작불사를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류에 휘말렸다. 마침내 종단은 이해 당사자(범행, 황진경)를 물리치고, 합의를 거쳐 월산을 주지로 임명하였다.

총무원은 지난 22일자로 월산(62, 법주사 총지선원 조실) 스님을 발령, 임명하였다. 이에 앞서 총무원은 총무회의를 열고 21일 총무행정지도위원회(회장 서운스님)의 불국사 분류 수습을 위한 제안에 따라 이 보다 앞서 발령됐던 진경스님의 사표를 수리하고 전 불국사 주지 범행스님과 합의로 월산스님을 발령한 것이다.<sup>81)</sup>

이렇듯이 불국사 住持에 취임한 월산은 불교사 사격을 고양시키면서, 불국사 문화의 향상에 노력할 과제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불국사 두 번째의 복원불사를 진두지휘 한 주역이 되었다.<sup>82)</sup> 이는 불국사를 본사 사격에 걸맞는 寺格의 고양, 수행도량 지향 등을 위해 헌신하였음을 뜻한다. 그가 추진한 불국사 불사는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사상적인 불사이었다. 불국사의 복원이 완료되면서 불국사에 수도장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은 그때에 강력하게 지적되었다.<sup>83)</sup> 그래서 불국사의 정신적, 사상적인 불사는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불사이었다.

이런 역사적 과제를 월산은 자연스럽게 추진하였다. 그의 지성적인 결단, 역사적인 행보가 평가받는 대목이다. 월산이 추진한 첫 번째 불사는 불국사에 강원과 선원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월산은 우선 강원의 개설을 추진하였다. 그가 주지에 임명된 것이 1974년 6월 22일이었는데, 1년 2개월 후인 1975년 8월 31일에 강원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개원식의 보도 기사를 제시한다.

제11교구 본사 불국사는 지난달 31일 주지스님을 비롯 대중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국사 승가학원 개원식을 가졌다. 강사는 法空스님. 이날 식은 총무국장 月性

80) 김광식, 「이청담과 조계종 유신재건안 연구」,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pp.440-442.; 김광식, 『아! 청담』, 화남, 2004, pp.58-59.

81) 『대한불교』 1974.7.7, 「불국사 주지에 월산스님」. 정식 발령 이전에 수덕사 토굴(전월사)에서 정진을 하였던 월산은 주지 직무대행을 맡았다고 「연보」(『월산선사 범어집』)에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한 1차 기록은 아직 찾지 못했다.

82) 『대한불교』 1976.12.26, 「불사의 현장을 찾아 - 토함산 불국사」.

83) 『대한불교』 1973.8.19, p.3, 「복원 불국사」 내용 참조.

스님의 개식사와 교무국장 性陀스님의 강사 약력 소개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사 범공스님은 인사에서 “항시 도제양성에 염원이 되어오던 바 본사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으나 중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주지스님은 격려사에서 “중단 백년대계를 위해 도제양성이 시급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원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금년에는 선원을 신축하고 내년에는 강원을 증축하여 명실공이 모범적인 선·강원을 이룩하여 도제양성과 수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말사에 1인 이상 학인을 의무적으로 강원에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국사는 그간 강원이 신설되어 있었으나 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불국사 말사는 50여 개로 알려지고 있어 강원생을 적어도 60~70명 이상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sup>84)</sup>

이렇게 월산 그는 강원 개원을 위한 불사를 조속히 추진하였다. 이는 중단 백년대계를 위해 도제양성의 차원이었는데, 불국사를 관광사찰에서 수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전환하려는 월산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월산은 불국강원을 개원시키면서 곧 바로 불국강원의 건물을 새롭게 하는 불사에 착수하여 1978년 9월 10일에 준공하였다.<sup>85)</sup> 불국강원의 강주는 박한영 강맥을 이은 윤기 강백이었다.<sup>86)</sup> 윤기는 취임 직후 바로楞嚴班을 개설하여 강의에 나섰다.<sup>87)</sup> 이와 같은 행적에서 월산의 인재양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 후 월산은 강원 개원 및 준공을 일단락을 한 직후, 사상적인 불사 차원에서 선원 개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 무렵 그는 자신도 철저히 수행을 하였다. 그 단적인 예증이 통도사 선승인 경봉을 자주 찾아가 문답을 한 것이다.<sup>88)</sup> 월산의 경봉에게 배움 및 존경은 구체적인 인연으로 진전되었다.<sup>89)</sup>

마침내 불국사 선원의 개원은 1976년 5월에 성사되었다. 강원 개설 후, 불과 1년 만에 개원을 하였으니 월산 그가 선원 개원에 쏟은 정열은 대단한 것이었다.

84) 『대한불교』 1975.9.7, 「불국사 승가학원 개원」. 불국강원의 첫 수료식은 1976년 4월에 있었다. 『대한불교』 1976.4.25, 「불국사, 승가학원 첫 수료식」.

85) 『대한불교』 1978.9.24, 「불국강원 준공식 - 10일 개강식도 함께... 강주에 雲起스님」.

86) 윤기문도회, 『독보건곤 ; 윤기강백 행장기』 선운사, 2015 참고.

87) 『대한불교』 1978.11.12, 「불국강원 능엄반 모집」.

88) 경봉문도회, 『삼소굴 법향』, 통도사 극락암, 2020, p.453.

89) 성타, 「대기대응에 능하셨던 큰스님」, 『삼소굴 법향』, pp.86-87. 경봉은 1892년생이고 월산은 1913년생으로 21년 차이가 난다. 이는 은사뻘 이었고, 배움에는 나 이와 지위 고하를 묻지 않는 것이 구도의 세계에서는 보편적인 이해이다.

이런 배경에서 선원 개원을 보도한 기사를 제시한다.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주지 월산스님)는 지난 73년 복원불사에 이어 또 하나의 장엄한 佛國禪院을 완공, 지난달 29일 그 개원식을 성대히 봉행했다.

이날 개원식은 전 종정 고암스님, 통도사 극락암 조실 경봉스님, 수덕사 조실 벽초스님, 장로 대의스님, 전 종회의장 벽안스님, 규정원장 자운스님, 종회 부의장 혜정스님, 총무부장 월주스님 등 종단 대덕 스님을 비롯 3백여 명의 스님들과 경주시장, 월성군수, 경주 경찰서 등 이 지방 내외 귀빈 1천여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불국사 총무 서인 스님의 사회로 성대히 거행됐다.

불국사 주지이며 불국선원 원장인 月山스님은 인사 및 경과보고에서 “禪이 왕성하면 불교가 왕성하고, 불교가 왕성하면 나라가 왕성 한다는 취지 아래 불국사가 복원되었으나 禪·강원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 선원 건립에 뜻을 두어 직접 지휘·감독, 오늘의 선원이 건립되었다.”고 말했다. … (중략) … 토함산 상봉줄기, 불국사에서 정남쪽 5백m 지점 1천 3백여평 대지에 건립된 건평 1백 56평의 불국선원은 지난75년 12월 착공, 1억여원의 공비를 투여, 공기 5개월에 걸쳐 완공되었으며, 재래식 선방 구조와 중국 선방 양식을 절충한 새로운 구조의 특수한 선원으로 30명이 수행 정진할 수 있다. 현재 동 선원에서 28명이 정진중이며 선방 수용에 대한 일체 유지비는 석굴암(주지 월남스님)에서 부담한다고 한다.<sup>90)</sup>

월산이 선원 개원을 서두른 것은 선의 왕성은 불교와 국가의 왕성으로 직결된다는 소신이었다. 이는 아래의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禪을 현대화 하고 대중화 하여 재가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참선을 통해 국민성을 개선하고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 月山 스님의 평소 신념. 스님은 불국사 복원이라는 대역사가 마무리 지어지자 큰절에서 정남쪽 5백m 지점의 1천3백여 평의 佛國禪院을 당시 1억여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창건함으로써 한국불교사에 또 하나의 歷史를 이룩하게 된 것이다.<sup>91)</sup>

불국선원의 선원장(조실)인 월산의 의도는 승려들의 참선뿐만 아니라 신도, 일반인까지 의도한 정신적 불사이었다.<sup>92)</sup> 즉 선의 현대화 대중화를 통한 국민성

90) 『대한불교』 1976.6.6, 「佛國禪院 역사적 開院」.

91) 『대한불교』 1975.9.7, 「禪院 순례 : 불국사 佛國禪院 - 月山祖室 새 家風 진작」.

92) 『대한불교』 1976.12.26, 「불사의 현장을 찾아서 : 토함산 불국사」.

개조 프로그램이었다.

위와 같이 월산이 불국사 사격을 사상적으로 고양시킨 행보는 그를 더욱더 종단의 고승으로 위상이 격상시킨 요인이 되었다. 그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1978년 5월 6일 종단 원로의원으로 추대,<sup>93)</sup> 1978년 9월 9일 종단 비상총회 의장으로 추대,<sup>94)</sup> 그리고 1978년 10월 18일 총무원장으로 취임이었다.<sup>95)</sup> 월산이 총무원장을 다시 맡은 시기는 종단이 이른바 조계사파와 개운사파로 대립을 하였던 무렵이었다. 종단의 분열, 후퇴가 설왕설래 하던 때이었다. 그러나 월산은 종단 차원에서 소임을 보았다. 그래서 월산은 종단이 분열로 인한 불교계의 이미지 하락을 걱정하여 1979년 2월 14일에 전격 사퇴하였다. 이는 종단 화합을 위한 결단이었다.

총무원장 월산스님은 지난 14일 총무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월산스님은 법주사에서의 「금오문중」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는데 이 회의에 참석했던 혜정 이두스님 등도 중앙총회 및 총무원의 공직에서 사직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무원장 월산스님은 사퇴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 “오늘날 장기적인 종단 불화가 하루속히 수습되지 않고 있어 불자된 도리로 그 책임의 일단을 통감한다”고 말하고 “종단 분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미 “4부대중은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佛敎百年大計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월산스님의 주선으로 모인 금오대중사문도들은 현 금오문중이 이른바 조계사측, 개운사측으로 나뉘어 종단 불화를 주도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이를 불식하고 아울러 종단불화의 수습을 위해서는 금오문중이 양측에서 물러남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사퇴키로 결의한 것이다. 그러나 월주 설조 두 스님만이 이에 이의를 제기, ‘사퇴’치 않겠다고 밝혔다.<sup>96)</sup>

즉 월산은 종단화합을 위해 금오문중의 승려들이 이해 당사자 측인 조계사파와 개운사파에서 모두 퇴진하는 결의도 주도했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총무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처럼 그는 先公後私를 실행하였다. 그 이후인 1979년

93) 『4·5·6대 중앙총회 회의록』, 조계종, 2001, p.921, p.937.

94) 『대한불교』 1978.9.24, 「비상총회 의장, 월산스님 선출」.

95) 『대한불교』 1978.10.29, 「제6대 종정에 윤고암대중사 추대」.

96) 『대한불교』 1979.2.25, 「月山스님 總務院長職 사퇴 - 門中회의 宗團분규 수습위해」.

11월 30일, 월산은 중회의장에 취임하였다.<sup>97)</sup> 마침내 1980년 4월 중순, 대타협을 거쳐 종단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하였다.<sup>98)</sup>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종단화합에 헌신한 월산의 그런 행보는 중정 추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망에 오르고, 제일 많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정 당선, 확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보도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중회는 이어 각 분과위원장을 뽑고 중정 추대 조례를 고쳐 중앙중회 의원과 원로의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추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중정 추대에 들어가 투표를 했으나 최월산스님(불국사 조설)이 이성철스님(해인사 방장)을 2차에 걸쳐 27 : 28 29 : 31로 앞섰으나 중정 추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5월 7, 8일 속개된 회의에서도 막후 절충을 통해 중정 추대를 시도했으나 8일 중회가 유회돼 중정 추대는 무산됐다.<sup>99)</sup>

위의 내용에 나오듯이 월산과 성철의 투표 수는 28 : 27, 31 : 28이었으나 여타 지지표(2차 투표 : 석주 2표, 월하 2표)가 있어, 즉 과반수를 넘지 못해 중정에 당선되지는 못하였다. 당시 중회 회의록을 보면<sup>100)</sup> 월주가 총무원장에 당선되어서 같은 문중인 월산을 제외하자는 여론도 있었다. 즉 금오문중과 대립적 구도를 보인 용성문중의 성철을 중정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조계사파와 개운사파라는 이전 갈등의 앙금이 남아 있었다는 흐름이 보인다. 하여간에 중회에서는 중정은 투표치 말고, 만장일치로 모시자는 여론도 있었다. 그리고 양측(조계사파와 개운사, 각 5명)의 막후절충까지 시도하였으나 끝내 중정 결정은 확정하지 못하였다.<sup>101)</sup> 1981년 1월, 후임 중정으로 성철이 추대되었다.<sup>102)</sup>

97) 『대한불교』 1979.12.9, 「중회의장 최월산 스님」.

98) 『대한불교』 1980.4.27, 「중회의원 69명 당선 확정」.; 『대한불교』 1980.5.11, 「총무원장에 송월주스님 당선, 새집행부 구성」.

99) 『대한불교』 1980.5.11, 「총무원장에 송월주스님 당선, 새집행부 구성」.

100) 『제4·5·6대 중앙중회회의록』, 중앙중회, 2001, pp.1295-1315.

101) 중회에서는 중정을 7명(암도), 6명(월주)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일부 원로와 중회의원들은 월산을 중정으로 추대하자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한 스님이 누구인지는 전하지 않는다.

102) 원택스님, 『성철스님 행장』, 글씨미디어, 2012, p.167. 정화중흥회의 체제하의 원

그러나 월산은 당신의 뜻과 무관한 중정 추대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종단 어른으로 굳건하게 불국사를 지켰다. 1980년 7월, 정휴는 월산을 “한국불교의 정신적 정상에 있다”는 평가를<sup>103)</sup> 하였던 바, 이 평가가 당시 월산의 위상을 대변하였다.

#### 4. 불교사상(중도) 회향기(1986~1997)

월산은 1980년대 중반에도 종단 원로의원,<sup>104)</sup> 불국사 주지, 불국사 강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면서 불국선원 조실,<sup>105)</sup> 대승사 선원 조실,<sup>106)</sup> 법주사 총지선원, 공림사 감인선원, 북천암 선원 등 여러 선원에서 조실 소임을 보았다.<sup>107)</sup> 월산은 이런 소임을 보면서 그의 불교사상은 중도사상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월산의 소신을 들어보자.

큰스님은 말한다.

『중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도이지. 나의 중도관은 일체 것을 초월해서 일체 것을 여의지 않는 것이 나의 중도관이지』<sup>108)</sup>

- 한국의 여러 큰스님이 중도사상을 주장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나는 중도를 주장해요』

- 큰스님의 중도사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중도사상을 늘 강조해, 대개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라고 하

---

로회의에서 추대되었다.

103) 『대한불교』 1980.7.13, 「해탈과 열반 사이 : 月山大禪師」.

104) 『제7대 중앙종회 회의록』, 조계종 중앙종회, 2002, p.579. 1982년 6월 2일, 중앙종회에서 추대되었다. 함께 추대된 고승은 지효, 관웅, 서운, 동현, 중수, 경월 등이었다.

105) 『대한불교』 1980.7.20, 「선원순례 ⑦ : 불국사 불국선원」.

106) 『선원총람』, 조계종 교육원, 2000, pp.345-346. 불기 2530~41년까지 대승사 대승선원의 조실이었다고 방함록에 나온다.

107) 그는 운계선원(영일, 자장암), 죽림선원(산청, 정각사), 수정암(법주사) 선원, 사불선원(문경, 윤필암), 서래선원(금산사) 등이다. 『법보신문』 1997.9.17, 「특집 : 월산큰스님 원적, 연보」.

108) 최석환, 「인물연구 : 불국선원 조실 월산선사」, 『불교춘추』 3호(1996.5), p.16.

는 것이 중도인데, 나의 중도관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나의 중도관이지. 나쁜 것 버릴 것이 있어. 나쁜 것 고쳐서 써야지. 악이라고 버리면 돼 고쳐야지. 더군다나 언론기관에서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지 말고 나쁜 것도 고쳐서 요새 정부가 나쁜 일을 많이 하대.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백성들이 조그만 법을 어긴 것을 들쳐내고, 대가리 큰 놈은 큰 법을 어기고 나쁜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법을 엄하게 다뤄야 해」<sup>109)</sup>

내 가풍은 한마디로 安貧樂道야, 글썄 누구에게 전한단 말인가? 法을 아는 사람이 전해 받았지.<sup>110)</sup>

위와 같이 월산은 자신의 불교사상은 중도사상임을 강조하였다. 이런 입론에서 그는 불교공부의 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불교공부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나니 하나는 향상일로(向上一路)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향하일로(向下一路) 하는 것이다. 향상일로는 참선정진을 말하고 향하일로는 중생교화를 말한다. 향상일로는 결국 향하일로로 나아가기 위함이요, 향하일로는 향상일로로 나가기 위함이니 이는 손등과 바닥과 같으니라.<sup>111)</sup>

즉 월산은 참선정진과 중생교화를 불이의 관점에서 인식하였다. 이렇듯이 그는 중도적, 온건적인 수행을 강조하였다.

모름지기 대중은 부처님 도량을 찾고 마음에 염할 것이며 간경과 염불을 게을리 하지 말고 선지식(善知識)을 찾아 바르게 사는 길을 물을 것이다.<sup>112)</sup>

이와 같은 균형적인 수행(간경, 염불 등)을 강조한 그는 자신의 인식과 행보를 대중에게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그가 1980년 6월<sup>113)</sup> 경주에 세운 부인선원을

109) 의림, 「인터뷰 : 불국선원 조실 월산큰스님」, 『불교춘추』 3호, 1996, p.29.

110) 『법보신문』 1988.8.30, 「解制 특별인터뷰 : 불국선원 조실 최월산 대종사」.

111) 『월산선사 법어집』, p.221.

112) 월산,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 『불교사상』 8호(1984.7), p.31.

113) 『월산선사』 연보에는 1988년 3월에 건립되었다고 나온다. 그러나 필자가 『법보신문』 보도기사에서 찾은 기록에는 1980년 6월이라고 나온다. 건립 시점, 변화 등에 대한 후속 확인이 요청된다. 부인선원의 작명을 월산이 했고, 1975년에 시작된 불국사 선행회가 연원이라고 한다. 2021년 4월 26일, 경주선원으로 명칭을

1992년에는 지원을 강화하면서,<sup>114)</sup> 더욱더 대중교회에 나섰다. 그가 이처럼 대중교회에 나선 연유를 살펴보겠다.

내가 경주에 왔을 때 사람들은 선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74년에 토함산 기슭에 불국선원을 개원하고 눈 푸른 수행납자들을 지도해 오면서 몇 년 전에는 경주 시내에 부인선원을 개원하여 선을 대중 속으로 전파했지.<sup>115)</sup>

위의 어록에 보이듯, 그의 선을 통한 대중교화의 소신은 항상일로와 향하일로를 동일하게 인식한 관점 및 실천적 행보에서 구현된 것이다. 그의 대중에 대한 애정은 1991년 9월, 경주 불교교육원의 개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sup>116)</sup> 이와 같은 그의 대중교회에는 중도사상이 깔려 있었다. 물론 그 자신도 중도사상에 입각에서 종단의 소임을 보고, 대중교회를 하였다.

종단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대중처소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매양 다투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닦으려 하지 않고 존경받고 공양받는 형상만 닦으려 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부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sup>117)</sup>

월산은 종단 소임을 부처의 마음에서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서 월산은 종단의 제도 및 소임자 선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였다.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본사 중심제가 부활 되어야 해요. 그리고 중정은 전 승려가 모여서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명이라는 없거든. 모든 문제가 누구를 임명 하는데서 문제가 생기고 금전이 오가고 비리가 생기는 게 아냐.<sup>118)</sup>

---

변경하였는데, 경주 시민이 참선을 하는 선원이다.

114) 부인선원은 1992년 5월 무렵 경주시 중앙로 16번길 11(노동동 49-2번지)로 이전했다. 『법보신문』 1992.5.11, p.14, 「광고」 참고. 대표는 이보명행 이었다.

115) 최석환, 「인물연구 : 불국선원 조실 월산선사」, 『불교춘추』 3호, 1996. p.19.

116) 『법보신문』 1996.12.11, p.15, 「불국사 부설 불교교육원 새 보금자리 마련」.

117) 『월산선사 범어집』, p.349.

118) 의림, 「인터뷰 : 불국선원 조실 월산큰스님」, 『불교춘추』 3호, 1996. p.29.

이렇게 월산은 부처의 마음에서 종단 소임을 보았기에 그가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등을 맡았을 때 거의 잡음이 없었다고 이해된다. 위에서 나온 본사 중심제, 금권선거 배척은 지금에서도 탁월한 정책이라고 하겠다.

한편 그는 1986년 6월부터 원로회의 의장 소임을 담당하였다.<sup>119)</sup> 그 당시 원로회의 의장은 상당한 권한이 많았다. 1970년대에는 종정의 권한을 둘러싸고 수많은 분규가 노정 되었다. 그래서 1981년 1월, 불교정화중흥회의에서 종정은 종단의 神聖을 상징하는 권위를 부여하고 원로회의에 종단의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였다.<sup>12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산은 원로회의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비교적 온건하게 수행하였다.<sup>121)</sup> 1991년과 1993년의 종정 선출 즈음에도 자신의 이름을 거론치 말아 달라고 당부하였다.<sup>122)</sup> 이런 행보는 그의 중도사상, 향상일로와 향하일로의 동일성, 부처의 마음을 실천하는 종단관, 종단화합 우선적인 행보 등이 어우러진 것에서 나온 것이다.

월산의 행보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1988년 5월, 『법보신문』의 창간이었다. 『불교신문』밖에 없었던 황무지와 같은 불교언론의 정황에서 “불교계에도 바르고 깨끗한 언론, 포교 활성화를 위해 참신하고 기획력이 빼어난 언론이 절실하다”는 원력으로 창간을 주도하였다. 1988년 5월 16일 ‘大慈大悲의 등불을 밝히겠다’를 모토로 내세우고 『법보신문』을 창간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월산의 창간사를 제시한다.

「법보신문」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三千大千世界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자 태어났다. 저 해와 같은 광명을 빌어 무량의 소리를 담은 목탁을 쥐었다. ... (중략) ...

「법보신문」은 다만 佛家の 通信일 수만은 없다. 佛者の 讀本일 수만은 없다. 나라의 구별이 없고 人種을 넘어서는 위에 宗教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大乘, 아니 大大乘

119) 『경향신문』 1986.5.21, p.5, 「최월산, 불국사주지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에」.

120) 김광식, 「조계종단 종정의 역사상」, 『대각사상』 19, 2013, pp.158-160.

121) 선원빈, 「본분을 망각했을 때는 누구보다 엄한 질책을」, 『대중불교』 1990년 12월호, p.27.

122) 『동아일보』 1991.2.4, 「성철, 월산 두 스님, “더 이상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종정추대 고사 - 새 변수로」. 이때, 월산은 원로의원 사퇴서까지 제출하였다. 『동아일보』 1993.11.16, 「원로의원 9명 참석」. 서암을 종정으로 선출한 이 회의에 월산은 참석하지 않았다.

의 초월을 실천하고자 한다.  
 첫째, 나를 淸淨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나라가 바르게 서야 한다.  
 셋째, 統습을 이뤄야 한다.  
 넷째, 大慈大悲의 불을 밝혀야 한다.  
 ... (중략) ...

『법보신문』은 木鐸이 되어 영원할 것이다. 하늘의 새처럼 바다의 물고기처럼 自由로울 것이다. 부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公論을 이끌어 平和, 인류의 행복을 이룩하는데 거리낌 없이 나아갈 것이다.<sup>123)</sup>

월산은 초대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취임하면서 “오직 진리만을 받들고 공경하며, 업신여기는 我慢을 굴복시켜. 公明正大가 향상하는 불국토를 구현하라”는 사훈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도사상을 불교 언론을 통해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의지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종단 및 대중에 대한 헌신, 불교문화 창달을 하던 월산은 1997년 9월 6일 입적하였다. 그의 영결식은 9월 10일 불국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거행되었다. 영결식에서 법어는<sup>124)</sup> 중정인 월하대종사, 영결사는 원로의

123) 『법보신문』 1988.5.16, 「최월산 : 創刊辭」.

124) 聖林堂 月山大宗師 靈前

嗚呼라!  
 月山大宗師시여!  
 山 위에 달이신가  
 달 밑에 산이신가  
 本來 산과 달이 둘이 아니니  
 어찌 分別이 있으시겠습니까.  
 去來가 없고 生滅이 끊어진  
 자리로 돌아가시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日月도 曲穴에 不始光하고  
 淸風도 海底에 不損波라.  
 生도 이러하고 死도 이러하니  
 龔人也唱胡家曲하니  
 好惡高低를 總不聞이라.  
 吐舍山頂에 孤月明하고  
 佛國淨土에 萬人舞라,

장(혜암), 조사는 총무원장(월주), 조시는<sup>125)</sup> 고은이 하였다. 그리고 49재는 불국

도함산 위에 달이 밝으니  
불국정토에 만인이 춤을 춥니다.

불기 2541년 9월 10일  
曹溪宗 宗正 月下哭拜

125) 回向 月山大宗師

앉으면 최고의 梵鐘이요,  
일어서면 九層塔이셨습니다.  
月山大宗師

젊은 날 북만주 별관 떠돌며  
그 눈보라 속  
가슴 복찬 사라  
大地의 사람이셨습니다.

해방 직전 돌아와  
한 나그네의 金剛經 독송에 눈떠  
옳거니  
生死를 뛰어넘자고  
山中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경허  
만공  
金烏의 법백으로 하여금  
버린 것은 망상이요,  
가진 것은 이 빛고 하나.

보름달 흰히 두둥실 떠올랐으니  
망상이 괴괴함이어!

동방의 禪風 새로 짓기 위하여  
그 결사로  
청담 성철 향곡 등과 한 뜻이었고  
동방의 법 떨치기 위하여  
그 정화로  
탄허 구산 관응 월하 경산 등과  
애오라지 한 몸이셨습니다.

그 많은 진수성찬의 말쑥 삼가셨습니다.

사 무설전에서 거행되었다. 그는 치열한 삶을 마치고 적멸의 세계로 갔다. 그의 역사속에서의 자리매김, 평가는 후학에게 맡겨졌다.

### III. 결어

맺는말에서는 월산의 생애사를 본 고찰에서 다룬 각 시기별 내용 및 특성을 요약하겠다. 그리고 추후 연구할 내용을 거론하고자 한다.

첫째, 월산의 생애 1943~1954년을 수행기로 보았다. 이 시기에 월산은 선원, 토굴, 봉암사 등지에서 간화선 수행을 하였다. 그는 금오, 만공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다. 월산은 종단의 외곽, 변두리, 오지에서 치열한 수행을 하였다.

둘째, 월산의 생애, 1954~1974년까지는 종단 활동기로 보았다. 이 시기 전반부는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하였고, 후반부는 정화운동의 성사로 인해 월산은 본사(법주사, 신흥사, 동화사) 주지, 종단 간부 등을 역임하면서 종단에 헌신하였다. 종단 간부는 감찰원장, 총무원장을 지칭한다. 총무원장 시절에는 종단 개신을 시도 하였지만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아쉬운 시도에 그쳤다.

셋째, 1974~1986년의 월산은 불국사에 주석하면서, 불국사 사격 고양에 주력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분규 및 갈등의 논란에 있었던 불국사를 수행 도량으로 전환시키는데 노력하였다. 선원과<sup>126)</sup> 강원(승가대)의 개설은 그를 예증한다.

---

그 많은 청천벽력 할과 방  
그대로 들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月山스님  
새 떼 돌아간 적막일 줄이야.

거기 당신의 中道 가운데  
닿고 닿은 신발 한 짝이셨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축령 쪽입니까  
덕숭 쪽입니까  
개마공원 쪽 흥안령 쪽입니까  
오늘 일은 탄숨 회상입니다.

126) 그는 중국총림의 재현을 염두에 두었는데,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무비, 「청규 편찬의 의의와 방향」, 『승가교육』 7집, 2008, p.130.

이로 인해 불국사의 명성은 회복되었고, 사격은 증진되었다. 경북의 명찰, 역사적인 사격이 유명한 불국사의 명예 회복을 단행하였다. 이 구도에서 불국사에 강원, 선원을 개설하였다.

넷째, 1986~1997년의 월산은 그의 불교사상을 승가 및 사회에 회향시켰다. 그래서 회향기라 명명하였다. 그는 중도사상으로 후학(상좌, 수좌, 불자 등)을 가르치고, 지역 신도들을 수행(부인선원, 불교교육원)케 하였다. 이런 구도에서 『법보신문』의 언론창달을 통한 불교문화 진흥 활동을 하였다.

지금껏 본 고찰에서 필자가 다루었던 시기별 월산의 생애를 정리하고, 그 핵심을 피력하였다. 추후에는 다양한 자료(이력서, 회고록, 증언 등)에 의거하여 월산의 생애, 사상, 문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도사상에 대한 폭 넓은 탐구가 요청된다. 특히 성철이 강조한 중도사상과의 비교가 요청된다. 필자의 이 글이 불국사, 불교정화운동, 현대 고승, 선원 등의 연구에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金鳥集』, 금오문도회, 1974.
- 『月山禪師法語集』, 월산문도회, 1998.
- 금오선수행 연구원,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전 2권), 2008.
- 동국대 중학연구소, 『金鳥스님과 한국불교』, 금오선수행 연구원, 2011.
- 김광식, 「봉암사 결사의 전개와 성격」,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 \_\_\_\_\_, 「정금오의 불교정화운동」, 『불교학보』 57집, 2011.
- \_\_\_\_\_, 「불교정화운동에서 금오선사의 역할」, 『金鳥스님과 한국불교』, 금오선수행 연구원, 2011.
- \_\_\_\_\_, 「조계종단 종정의 역사상」, 『대각사상』 19집, 2013.
- \_\_\_\_\_, 「조계종단 총무원장 역사상의 제문제」, 『승가회합과 조계종의 미래』, 혜민기획, 2014.
- \_\_\_\_\_, 「월산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32집, 2019.
- 김순석, 「금오문중의 위상과 성격」, 『대각사상』 32집, 2019.
- 한보광, 「월산큰스님의 선사상(1)」, 『대각사상』 32집, 2019.
- 석길암, 「성림월산과 불국사 선원」, 『대각사상』 32집, 2019.
- 한상길, 「근현대 불국사의 사격」, 『대각사상』 32집, 2019.
- 의 림, 「인터뷰 : 불국선원 조실 월산큰스님」, 『불교춘추』 3호(1996.5)
- 운기문도회, 『독보건곤 : 운기강백 행장기』 선운사, 2015.
- 송 혁, 「고승과의 대화 ; 분별지를 떠나라」, 『법륜』 123호(1979.5)
- 선원빈, 「스님을 찾아서 - 佛國禪院 祖室 月山大宗師」, 『법륜』 98호(1977.4)
- \_\_\_\_\_, 「법을 여는 자비의 문고리 되옵시니, 월산스님」, 『대중불교』 1990년 12월호
- 최석환, 「인물연구 : 불국선원 조실 월산선사」, 『불교춘추』 3호(1996.5)
- \_\_\_\_\_, 「인물탐험 : 월산대선사, 덕승산 선맥 이어온 큰스승 月山 선사」, 『선문화』, 2009년 4월호.
- 『대중불교』 97호(1990.12), 「법을 여는 자비의 문고리 되옵시니 : 월산 큰스님」
- 『대한불교』 1976.7.4, 「拈花室 탐방 : 月山大禪師」
- 『월간 海印』 31호(1984.9), 「불국선원을 찾아서 : 염화실의 미소 - 월산」
- 『월간 불광』 403호(2008.5), 「흠모 : 월산스님의 제자 종우스님」

Abstract

Study of Monk Wolsan's Life

Kim, Kwang-sik  
(Professor, Dongguk Univ)

This review is based on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the life of Monk Wolsan, who led the modern history of Bulguksa Temple and the main character of Jogye Order. Until now, academic approaches and research on Wolsan have been very weak. However, he was recently referred to the results of holding an academic seminar on the theme of his life at the Diagonal Institute of Thought (2019.12). However, the literature and testimony of his life are still lacking. Therefore, this article tried to shed light on his entire life based on the objective evidence that I found.

In this introduction, I wanted to distinguish his life into several stages and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his life at each time. First, his attendance period (1943~1954) after entering the country and leaving the country was illuminated. Second, it sheds light on his longitudinal activities (1954~1974). During this period, the theme of the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to overcome the contradictions of colonial Buddhism and the intellect of the General Affairs Commissioner's days were highlighted. Third, it dealt with the activities (1974~1986), which increased the history and culture of Bulguksa Temple while serving as the main location of Bulguksa Temple. Fourth, it covered his last life(1986~1997) which led his disciples, believers in Gyeongju, and many people according to his Buddhist thought, the middle thought.

We hope that this review, which deals with the above, will be a reference to the life and ideas of Wolsan, Bulguksa Temple in the modern era, and the study of the leaders of the Jogye Order.

Key words

Wolsan, Bulguksa, Jogye Order,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Gyeongju Buddhism, Big Monk, General Secretary

논문투고일 : '21. 10. 08. 심사완료일 : '21. 11. 24. 게재확정일 : '21. 11. 24.